

1. 손기찬과 사고로서의 건축

그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언어의 건축가이다. 말하자면, 건축 행위에 선행되는 사고과정에서 도출되는 개념언어와 공간과 형태 등 구체적인 건축작품으로 표현되는 형상언어라는, 이 두가지 언어의 활용에서 그는 논리성과 표현성 모두를 겸비한 건축가라는 뜻이다. 깊은 사고나 반성없이 어떠한 건축 사조(Ism)라는 시류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논리와 실체가 부합되지 못하는 관념적인 공간이나 구조체들을 생산하는 건축가들이 있다면, 또 한편에서는 매일 매일 다양하게 쏟아지는 외국의 그림책들(현란한 건축 잡지들)에 나오는 멋진 입면들의 조각 조각들을 교묘하게 뜯어 맞추고 거기에 아름다운 채색(유행하는 파스텔 색조로)을 첨가하며 의기양양해 하는 건축가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손기찬 그는, 오히려 그 어떠한 건축 사조(Ism)들에도 대담하다. 관념론적 말장난에 자기 농락을 당하거나, 입면 형태만의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미화(Instant Heautification)라는 걸치레의 화장술에 휘말리지도 않으며 사고로서의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사고로서의 그의 건축은 논리를 수반하지만, 그러나 차거운 논리나, 첨단화된 서구의 건축적 논리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도 않는다. 즉 문화성과 장소성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오히려, 보편적인 시대적 논리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의 확고한 태도는 서구적 텍스트(Text)에만 맹목적으로 충직한 기능주의 신봉자를 오히려 경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그를 인문주의적 합리주의자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현재 행하고 있는 작업들은 서구적 모더니스트의 그것들과 유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다른 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오히려 그를 동양적 사고로 무장된 모더니스트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공동주거의 거주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

A New Attempt for the Livability in Apartment Housing

손기찬의 봉천동 아파트의 경우

Case of Pongcheon-dong Apt. by Architect Son

이영철 / 프랑스 국립 그르노블 건축대학 보스트 디브로마, 건축 역사·비평가
by Lee Young-chul

본지 6월호(통권 326)에 게재된 회원작품 「봉천동 아파트(설계:손기찬)」는 기존의 획일화된 공동주택 설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작품을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네 공동주택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첨단화된 서구의 건축적 논리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도 않는다. 즉 문화성과 장소성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오히려, 보편적인 시대적 논리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의 확고한 태도는 서구적 텍스트(Text)에만 맹목적으로 충직한 기능주의 신봉자를 오히려 경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그를 인문주의적 합리주의자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현재 행하고 있는 작업들은 서구적 모더니스트의 그것들과 유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다른 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오히려 그를 동양적 사고로 무장된 모더니스트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봉천동 아파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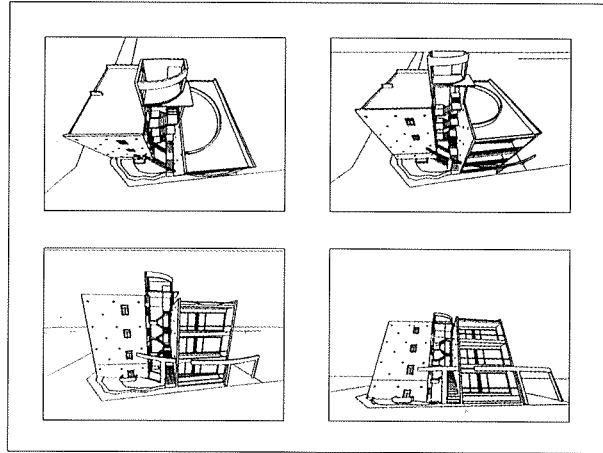
2. 건축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그는 누구 못지않게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한다. 전공 분야의 책은 물론 문학, 미학 그리고 사회학 등 다양한 방향의 책을 탐닉한다.

특히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기술된 건축학의 독서는 그의 각별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바람직한 건축 행위가 개인적 사고의 반영인 개념언어의 수립에서 시작하여 그의 구체적인 표출인 조형언어로의 구체화 작업이라는 점에서 문화 및 사회학적인 방면을 선호하는 그의 독서 경향에서 우리는 그가 지향하고자 하는 건축적 사고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이미 그 자신이 문명적이라기 보다는 문화적인 차원의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건축의 문명화를 그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에 있어서 문명의 차원은 시대성의 귀결이지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이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도구는 인간의 문화적 요인들(인간과 인간 관계나, 인간과 장소 및 사회성의 관계 등)에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화성에 대한 건축적 탐구와 그의 문명화와의 접목을 위한 시도 과정에서, 그는 우리의 전통의 그것들을 참조하고자 하지만, 그의 전통에 관한 관심사는 회귀적이거나 복고취향의 형식주의적인 "퇴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의 태도는 문화 인류학적이며, 물리적 차원의 건축을 넘어서 인간들의 교감의 장으로서의 건축 공간 그 속의 문제에서 해답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이는 그가 거론하는 노자나 장자의 자연 철학관의 몇 대목들과 아모스 라 포포트의 「주거 형태와 문화」에 나오는 구절들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네가 읽는 책들을 열거해 준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란 것을 말해 보겠다(Dis moi ce que tu lis, je te dirais que tu es)”라는 상송의 한 구절처럼, 우리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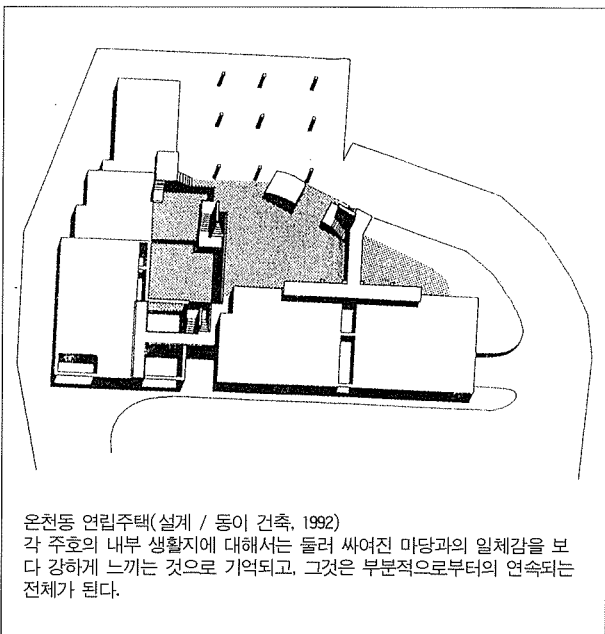
(그림2) 성산동 다세대 주택의 AXONOMETRIC(1995년 9월)

탐독서를 통하여 그 자신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의 건축 수필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그의 건축적 고뇌와 사고 및 개념들을 간파해 볼 수 있다.

3. 도시화와 주거성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시주거, 들여다보기·내다보기」(미건사, 1995)에 실렸던 그의 건축 수필 「외부공간의 회복—조용 공간(Correspondence Space)」(pp.83~93)의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도시, 주거 및 거주자들이라는 삼각관계에 대한 그 자신의 문제의식과 가능한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급속한 도시화/주거 문제의 양적 해결이라는 대안에서 파급된 “저렴한 기술적 해결에 의한 (공동주거의) 대량생산”, “경제성에 뒤따른 입면의 단조로움”,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의 난무(도심이건 시골의 논 한 가운데이건)”, “표준 평면의 획일적 적용”, “패턴화한 배치” 등 도시 주거 문제들(이미 우리 모두에게 기정사실화된 문제점들이지만)을 거론하면서, 그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동주거의 입면 형태상의 개선이나 단지 배치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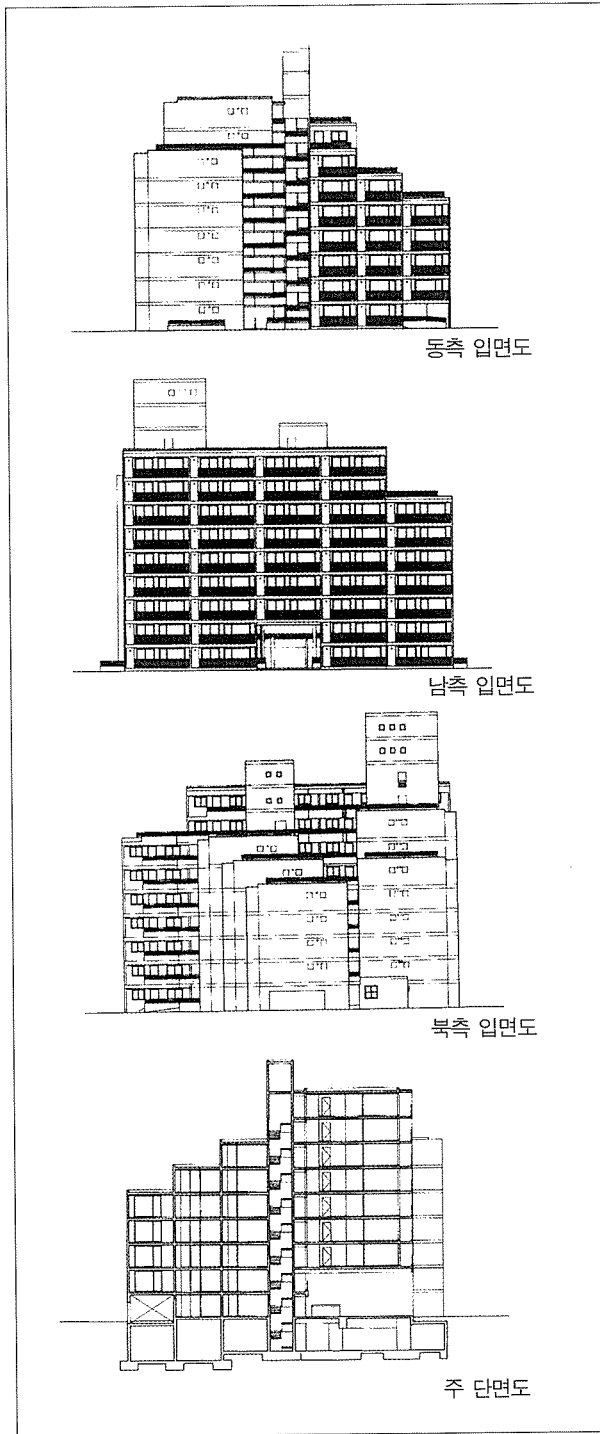


온천동 연립주택(실제 / 동이 건축, 1992)
각 주호의 내부 생활지에 대해서는 둘러 싸여진 마당과의 일체감을 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기억되고, 그것은 부분적으로부터의 연속되는 전체가 된다.

(그림1) 부산 온천동 연립주택 계획안(1993)



봉천동아파트 북측 상층부의 오픈된 복도



봉천동 아파트

만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향성의 배치 그 자체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린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의 해법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인간의 삶의 장소인 도시 만들기라는 사회성으로 문제의식을 되돌려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들을 건축주의 반성 및 건축가의 재고 검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가 지적하는 주거에 대한 “사용가치의 무시”와 “교환가치의 증대”라는 문제점은 주거 생산의 후원자인 건축주의 윤리성과 직결되는 사회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은 건축주=거주자라는 고전적 등식에서 건축주=비사용자라는 산업화·자본화의 등식으로 대치된 현상에서 야기된 필요악이라고 방관하거나 체념해 버리기에 앞서, 주거(House)=가정(Home)이라는 원초적인 성역의 개념에서 근절되어야 할 (서구 유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왜곡된 주거의식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이러한 잘못된 주거의식에서 파생된 공간의 과도한 “소유관계”들로 점철된 우리의 근대화의 역사는 “철저히 사유화된 내부공간만 존재하고, 도시에 산다는 것은 주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공간적, 대인적)에 어우러져 산다는 집단주택의 가치를 망각하게끔 되어진” 산업사회 현상속에서의 도시적 이기주의 현상이라는 사회성의 결여를 암시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의 산업화된 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풍의 회복(Recuperation of Urbanity)이라는 대전제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관점은 사회성 회복으로서의 거주공간의 창조이며, 이러한 과제가 건축 입면형태의 도시적 미화라는 서정적 차원에서 건축행위를 선행한다는 그의 신념체계이다. 즉 그가 자주 인용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아무리 써도 부서지거나 닳지가 않는다”로 표현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절실한 공간이라는 요소의 구성 문제가 그의 주거창조의 중심과제로서 등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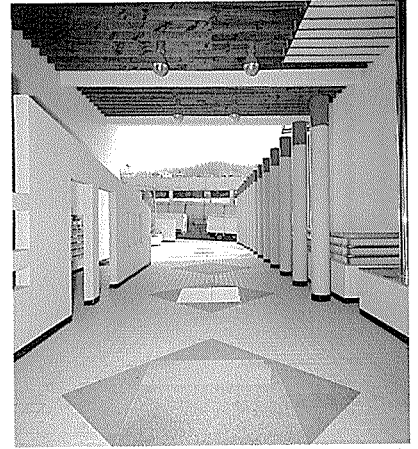
이러한 공간의 문제 또한 텍스트(Text)적 기능주의의 물리적 행태 공간의 답습이 아닌, 도시의 거주공간에서 사회성의 회복이라는 윤리를 바탕으로한 “공간의 공유화”, “이웃과 이웃간의 커뮤니티 회복”, “흐름의 연속체로서의 통로”, “주거의 안과 밖의 시각적 연결” 등 문화



광정내부 복도



광정에서 본, 1층 피로티에서 직접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주변



피로티 내부에서 주출입구쪽을 본 모습

인류학적이며 사회적 심리학적 기능성의 개념 요소들의 건축적 적용이라는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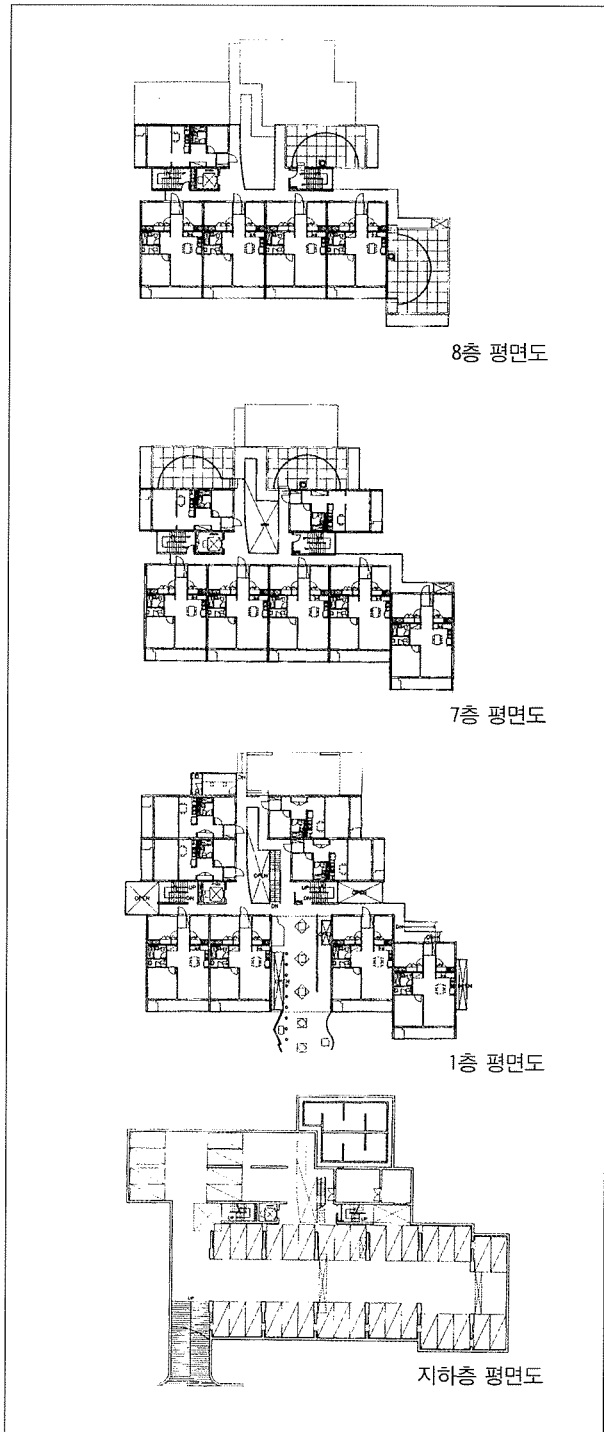
“사회적 동물로 정의된 도시의 인간에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주택이든 카페이든 목욕탕이든 거리든 그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의 교훈을 소중하게 여기는 손기찬에게 있어서 건축의 물리적 기능은 이미 기술적 선행 조건일 뿐, 그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그러한 문명적 차원의 바탕위에 사회적 및 문화적인 차원을 건축, 특히 도시 속의 거주공간 속에,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속에 “나홀로 생활을 강요 당하게 하는” 우리 공동주거 내의 폐쇄된 거주 환경의 개인화된 부정적 거주성(Livability)이라는 자폐적인 벽체들을 하나 하나씩 해체시키려는 열망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집짓기”를 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4. 봉천동 아파트 혹은 거주성의 회복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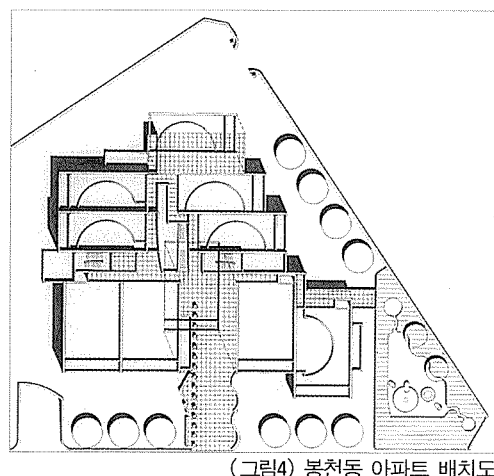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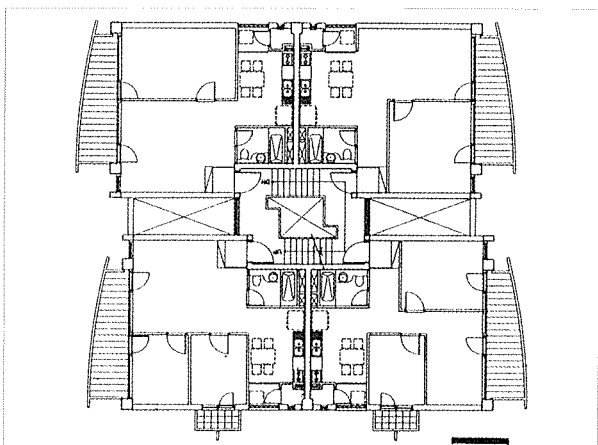
공동주거 내에서의 거주성(Livability)은, 각 주호내의 물리적·심리적인 기능성의 확보만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단위 주거동 내의 여러 세대들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주거로써의 건축적인 정체성(Identity), 함께하는 소속감(Sense of Belonging), 대화하고 어우러지는 사회성(Sociability) 등에서 맺어지는 공동체(Community) 의식을 통하여 확보되며, 그러한 의식이나 행태들은 건축적 공간 내·외부의 다양한 장소를 통하여 가능해지고 활성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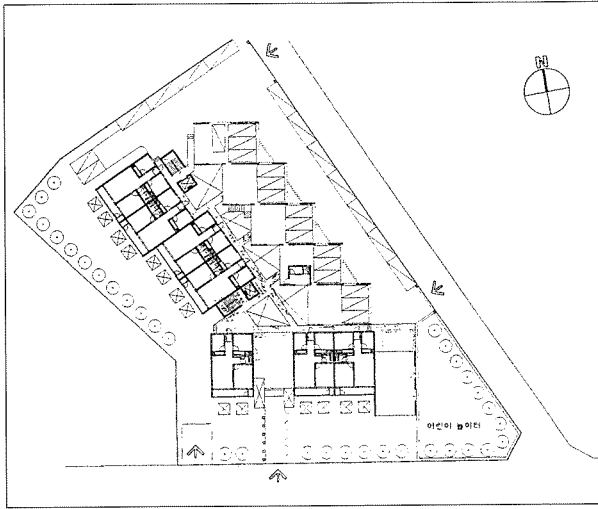
손기찬은 이러한 개념을 “더불어 사는 집”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그 거주성의 뿌리를, 우리 옛 마을에서의 “이웃과의 삶”과 “어우러진 공간들” 속에서 끄집어내고 있다. 나즈막한 담장을 통하여 시선을 주고 받고, 대화하며, 물건과 정들을 주고 받는 행태, 골목길과 공동마당을 지나치면서 부딪치고 만나면서 맺어지는 친숙한 관계 맺음 등등... 이러한 문화적인 거주개념들을 그는 일련의 근작들 속에 재해석하면서 도입·발전시키고 있다.

1993년의 부산 온천동 연립주택 계획안(그림 1)에서부터 건축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더불어 사는 집”으로써의 거주성”이란 그의 해법은 1995년 9월에 완공된



봉천동 아파트





(그림5) 봉천동 아파트 초기계획안(1993년)



(그림6) 중앙광장과 광장의 주위를 감돌면서 이어지는 통로공간의 일부

성산동 다세대 주택(그림 2), 1995년 10월 완공된 염리동 연립주택(그림 3)에서 그러한 개념의 긍정성을 재확인하였다. 성산동 다세대 주택의 경우, 두 개 주거동을 분리하고 접속하면서 도시의 경관을 관통하는 개방된 계단실이 각 주호의 주 출입구인 현관을 부지 도로 경계에 위치한 공유대문(암갈색의 철골가벽)으로까지 은유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주거영역과 도시영역 사이의 경계를 심리적으로 분리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염리동 연립주택에서는, 두 개의 계단실을 개방된 중앙 광정(光庭) 양측에 배치시키므로써 층과 층사이를 오르내리는 거주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부딪침과 만남의 필연적인 관계가 빛이 흘러내리는 밝음 속에서 쾌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나홀로 집” 속으로의 자폐성을 스스로가 절개시키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 속에 그는 1995년 12월의 봉천동 아파트(그림 4)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장소의 한 특질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봉천동 아파트의 초기 계획(1993년)은 현재 완공된 주거단지(72세대) 뒷편의 계획부지까지 포함한 88세대 중산층 평형의 설계 작업이었지만, 이는 뒷편 부지 주민들의 거부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한 초기안(그림 5)에서도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잘 엿볼 수 있다. 초기안에서도 현재의 완공된 주거안에서도 그는 클러스터(Cluster)형을 단지 배치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클러스터형 배치에 대한 그의 선호는, “단순한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배치가 아니라, 그 곳을 지나고 싶은 기분을 만들어 어느 공간에서 다음 공간에 이르는 사이가 레벨이 달라지는 시퀀스에 의해 그 주거의 거주자에게 다양성과 놀라움...(중략)... 다른 장소 그 곳이 어떻게 다른가 따위에 대한 감각을 부여하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외부공간 회복—조용공간)”라는 그의 말처럼, 기존 일자형(一字形) 평행 배치의 획일성에 반하여 어떠한 변화를 주기위한 단순한 다양성을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다. 초기 계획안의 클러스터 내부를 연결하는 확장된 입구 광장, 중심 광정(光庭) 그리고 상대적으로 길게 뻗고 가지치기로 연결된 주호 통로들의 연계성은 “동구—마을의 공동마당—담장 사이의 골목길”로 연결되는 전통적인 우리 마을의 시퀀스 감각을 빌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러스터가 축소된 현재의 봉천동 아파트에서도 그러한 개념이 구사되고 있으나, 구심화된 배치상의 이유로 내부의 통로(골목길)가 하늘까지 개방된 중앙 광정(마을 공동마당)을 감돌면서 이어진다는(그림 6) 점이 다를 뿐이다. 2개층을 대담하고 시원스럽게 뚫어놓는 주거단지의 입구에는 가(假) 열주틀(그림 7) 배치시키므로써, 시각적으로 “그곳을 지나가고 싶은 기분”을 촉발하면, 내부에서 외부로로의 연속적인 동선을 자발적으로 유도 당하게 한다.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수평적인 신체적 시퀀스(Corporeal Sequence)는, 또 다시 내부의 중앙 광정의 주위를 따라 지하층의 열린 주차장에서 상부의 최상층까지 시각적 시퀀스(Visual Sequence)에 의하여 수직적으로 급상승하다가, 열린 하늘 공간에서 멈추게 된다. 봉천동 아파트에서 시도되는 신체적·시각적 시퀀스의 효과는 단순한 흐름 체계의 연속성 부여에 있지 않다. 요점은 그러한 흐름 체계를 통하여 거주자의 신체와 신체들이 부딪치고 만나며, 시선과 시선이 스치고 마주보는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소속감”과 “눈길을 나눌 수 있다는 사회성” 등을 암시시키고 싹터가게 한다는 점이다.

광정과 그 주변 통로공간이 이루고 있는 봉천동 아파트의 내부의 공유공간은 구심적이면서 원심적으로 확산하려는 공간이며, 닫혀져 있으면서도 솟아오르려는 열려진 공간이다. 주호동 사이로 벌어진 동·서·북 방향의 틈새 공간사이로 도시의 바람이 들어오고 거주자의 시각은 밖의 경관을 따라서 도시의 저멀리까지 펼쳐진다면, 비와 눈이 떨어지는 열린 중앙광정을 따라 시선은 별빛과 달빛을 향하여 뻗어나간다(그림 8). 도시와 건축의 내부공간은 수평과 수직으로 연결되고 상호 교호되면서 서로가 조응한다. 외부영역과 내부영역, 접지역역과 하늘영역이 상호간에 침투하며 투과시키고, 끌어들이고 잡아당기면서 서로 교호하고 교감하는 것이, 손기찬 그가 연출하고자 한 공간의 조응(Correspondance)이다.

봉천동 아파트의 내부광정은 하나의 마을공간이자 안

으로 뒤집혀진 도시적인 적극적인 사회적 영역으로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의 장소이다. 스치고 부딪치고 만나는 열려진 도시속의 열려진 한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성 속에서 거주자들은 도시 사회와의 동질성과 정체성(Identity)를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적 거주성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5. 도시 공동주거의 가능성

공해와 각종 산업기계의 소음에 찌든 현대인에게 푸르른 자연과 맑은 대기가 기다리는 전원주택이라는 유희가 유행병처럼 급작스럽게 번져가는 요즈음이지만, 이는 일부 가능한 계층에 한정된 환상일 뿐, 과밀인구가 한정된 토지 내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도시인들에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거는 거부할 수 없는 주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강북 인구의 40%와 강남 인구의 70%가 그러한 산업화의 부산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공동주거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어쩔 수 없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주거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때론 숨가쁘게 허덕이며 시간에 쫓겨야만 하는 도시의 일상인에게는 여러가지 잡다한 유지 관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라는 공동주거는 단독주거에 비해 오히려 매력적일 수도 있으며, 그러한 선호도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공동주거란 그 시원부터 문자 그대로 대지의 평등한 분배라는 공개념과 그러한 대지위에 세워진 집합주거내에서 물리적으로 편리하고 정신적으로 화합하는 도시 공동체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유토피아적인 거주성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였지만 우리의 공동주거의 현상은 것처럼 긍정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무수한 외적·내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이 이미 앞에서 지적된 바 있다.

공동주거의 건축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요인들은 물리적 기능 요소 분석 및 적용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비롯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건축의 기능이 텍스트(특히 건축설계 자료집성의 축소판에 해당하는 소위 건축계획 각론에만 의존하는 경우)를 신봉하는 오늘날의 건축가들이 생각하듯이 신체적인 행동규범에 따른 물리적인 공간의 양적 기능만을 의미하거나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능적 규준들(Criteria)이란 보편적인 기준일 뿐 어떠한 특수 상황(장소, 인간, 문화성 등)을 배제한 최적 규범일 뿐이다. 이런 경우에서의 최적이란 최소 범위라는 축소지향성의 물리적 한계상황에서 제시된 보편적 적정성일 뿐 어떠한 장소, 인간, 나아가서는 문화라는 특수적 상황에 대응될 수 있는 개연적이며 포괄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특히 거주공간의 해체 풀이에 있어서, 이러한 단색적 사고에 의한 분석·종합의 부정적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 도시의 공동주거의 위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물리적 기능으로 충족되는 문명적인 거주공간에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특질들이 건축적 공간, 형태 등에 부여되고 연출될 때, 우리의 공동주



(그림7) 입구의 가(假) 기둥들 : 노랑과 빨강색으로 산뜻하게 칠해진 열주들이 진입시에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내부공간으로 유도하기 시작한다.



(그림8) 광정에 접한 통로의 저쪽 끝에 뚫려진 의도적인 틈새를 통하여 거주자의 시선은 도시의 밖으로 향하고 도시의 경관은 아파트 내부로 침투한다. 이러한 틈새가 다른 3면에 계획되었다.

거는 보다 나은 거주성이 보장되며 쾌적한 삶의 장소로서의 그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손기찬의 “더불어 사는 집짓기”라는 거주성의 개념은 “은신처의 제공이 주거의 소극적 기능이라면, 그 적극적인 목적은 한 인간의 생활에 적합한 환경, 다시 말하면 공간의 사회적 단위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 문화·인류학적 주거관에서 그의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봉천동 아파트에서의 그의 시도는, 우리 공동주거내의 부정적인 현상의 하나인 주호내로의 폐쇄성과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화라는 부정적 경향에 대한 시술책으로, 우리의 잊혀져가는 마을의 일상성 속에서 추출한 문화적 한 개념을 주거공간 창조에 도입·구체화하였다.

그는 공동주거 내의 공유공간 계획을 통하여 제시한 “더불어 사는 집”이라는 거주성의 새로운 해법은, 내일의 우리 공동주거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영원히 볼 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케이스 스터디의 하나로서 그의 의의는 축소될 수 없으리라 믿는다.